

食糧政策, 무엇이 문제인가

自力成長構造 實現따른 政策調整필요

金東熙 : 우리나라 經濟가 60년대 이후 급속히 成長함에 따라 農業部門全般이 새로운 轉換期를 맞게되었고, 그중 食糧문제도 새로운 局面에 들어섰습니다.

60년대까지는 食糧의 절대량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당시는 많은 人口가 農村에 살고 있어서 오늘날처럼 政府가 都市民의 安定的 食糧供給을 위해 많은 量의 糧穀을 調達할 필요가 적었습니다. 食糧의 絕對量이 부족했으나 經濟力이 미치지 못해 제대로 輸入할 수도 없어서 美國의 剩餘農産物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지요. 또 主穀인 쌀의 생산도 적었고 豊凶의 차이도甚해 봄이면 으레 쌀값이 올라 農林部長官이 引責사퇴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統一계통 벼품종의 보급으로 綠色革命에 성공함으로써 75년부터 쌀의 自給을 達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畜産物의 需要가 늘어 飼料穀의 도입이 急増, 穀類 및 豆類의 年間 輸入量이 300萬 t을 넘어섰고 계속 增加趨勢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當面 食糧문제는 國民生存을 위한 食糧의 절대량확보가 아니라 需要가 늘어나고 있는 高級食品, 즉 단백질식품, 新鮮식품, 加工식품 등을 어떻게 供給하는가입니다.

이와 같은 需要構造의 변화에 對應하는 問題外에도 米麥과 관련한 増産, 저장, 流通, 소비, 비축량확보, 糧穀管理基金赤字문제와 食糧의 海外調達, 國民營養,

參 席 者

- 朱 宗 桓(東國大農大教授)
- 金 燦 洙(延世大家政大教授)
- 辛 建 鎭(農水産部 食糧局長)
- 李 炯 九(經濟企劃院 經濟企劃官)
- 金 東 熙(韓國農村經濟研究院副院長, 司會)

1978년 7월 22일

松峴클럽 綠室

農家所得등 여러 分野에 대한 政策調整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李炯九 : 지난 17년간의 開發實踐을 토대로하여 最近 우리 經濟는 「主穀의 自給」「國際收支의 균형」이라고 하는 큰 政策課業을 성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自力成長構造의 實現에 따라 우리 經濟政策의 運營에 있어서도 各部門에서 새로운 轉換을 모색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農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農業政策은 예를 들어 通貨, 人力開發, 輸入自由化 등의 과제들과는 달리 經濟的 側面外에 무시 못할 非經濟的 측면이 있어 政策調整을 하기에 어려운 點이 많습니다. 다만 分명한 것은 調整은 불가피하고, 또 그것은 單回的으로 해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合理的으로 圓滑하게 풀어나가야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종래 농업에 대해서 갖고 있던 意識構造를 천천히 한번 재검토

해박아 될 것 같습니다. “常識의 虛實”을 알아보자는 것이지요.

즉 農業과 食糧에 관한 諸問題를 다룰 때, 과거처럼 무조건 해야한다, 海外에서 사오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式의 고정관념을 잠시 제쳐놓고 차근차근 妥當性을 따져 한번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쌀增産政策 中斷은 성급한 견해

辛建鎬 : 食糧需給狀況을 보면 쌀은 75米穀年度부터 自給을 달성하고 있으나 76년도 食糧自給도는 86% 수준이었고 금년은 7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食糧의 自給도가 이처럼 낮아진 것은 飼料穀物의 소비가 늘고, 77년 및 78년도의 보리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77년에는 4,170萬石의 쌀을 생산하였는데 이 중 3,340萬石이 純食用으로 소비되어 種子和 減耗를 합하여 연간 3,880萬石을 소비했습니다.

78年度 쌀의 自給도는 107.5%이며, 穀物總生産量은 5,920萬石, 수입량은 2,600萬石으로 移越量을 합하여 연간 1億石 정도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8,450萬石이 當年消費되고 2,500萬石이 移越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食糧의 供給규모가 75년의 8千萬石 수준에서 1億石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絶對人口增加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飼料穀物需要의 增大가 그 主要因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食糧自給도를 80% 水準으로 유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增産施策을 계속 밀고나갈 예정입니다.

農政의 基本方向으로서의 當面施策은 農家所得을 保障할 수 있는 수준에서 生産者價格을 支持, 쌀과 보리의 增産을 持續적으로 誘導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物價안정을 위해 쌀과 보리의 가격을 계속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糧穀의 消費調整施策입니다. 穀種간의 消費調整의 문제이죠. 작년 11월까지의 쌀의 消費를 억제해오다 그후부터 가공용 쌀消費까지 허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보리의 소비입니다. 農民의 주

요 所得源이자 전통적인 주요 穀物인 보리의 소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消費促進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지요.

전년도에 보리가 50% 減收되어 보리의 供給이 不足, 豫想되어 混食시책을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음은 事實입니다.

일부에서는 國民所得增加에 따라 쌀의 消費가 肉類나 고등소재로 代替되어 急減할 것이니까 지금과 같은 增産施策을 밀고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다소 성급한 것 같습니다. 현재 1人當 穀物消費는 쌀이 130kg, 보리가 25kg, 합쳐서 150kg 수준입니다. 所得이 增加하면 한동안은 劣等財인 보리의 消費가 줄어 일차적으로 쌀로 代替될 것입니다. 따라서 所得이 는다 해도 쌀의 消費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人口의 絶對增加의 측면과 함께 놓고 볼 때 쌀의 增産시책은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供給과 安保의인 측면에서도 쌀의 增産과 備蓄이 요구됩니다. 政府는 81년까지 全國民의 3개월분 쌀 1千萬石(전국 都市消費者의 6개월분)을 비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창고확보와 保管관리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當面施策은 物量의 需給과 관계되는 收買과 放出입니다. 增産을 위해서는 價格支持가 필요하고 특히 最盛出荷期의 가격보장과 民間의 過剩在庫를 덜어주기 위해 收買政策이 요구됩니다. 收買된 糧穀은 穀價安定과 消費者의 食生活 安定을 위해 모자라는 지역에 직접 放出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食糧의 自給度向上과 糧穀을 포함한 전체적인 食糧의 需給조절시책입니다. 정부는 糧穀需給計劃을 綜合的인 食品需給計劃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생존을 위한 식량의 절대량확보의 次元을 넘어서서 糧穀을 전체식량의 일부로 다뤄야 할 입장입니다.

糧穀 多消耗型 畜産정책 止揚해야

朱宗桓 : 1,2次 世界大戰을 겪은 뒤 세계각국에서는



金 東 熙 副 院 長

食糧이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어 식량 및 농업정책에 안보概念이 도입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英國은 과거 식糧自給도가 상당히 낮

았으나 이러한反省의 결과로 현재는 70%線까지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추세는 오일·소크이후 食糧危機 때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食糧剩餘輸出國들은 궁극적으로는 自國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3년 여름 美國이 大豆의 輸出規制를 발표하면서 닉슨대통령이 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輸出目的은 첫째 美國의 農民所得을 증대시키고, 둘째 國際收支의 개선, 즉 食糧輸出을 통한 美國의 國際經濟的 立場의 강화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美國消費者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輸出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美國은 大豆의 輸出을 規制할 수 밖에 없다.”

당시 이 조치는 여러나라로 파급되었으며, 이 밖에도 우리는 食糧危機 때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쌀의 自給이 달성되고, 전반적인 糧穀供給은 별 문제가 안된다고 일부에서 거론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國內外的으로 계속 유지될 것인지 의문시됩니다. FAO의 長期展望報告는 아시아의 쌀輸出國들은 人口增加로 인해 오히려 쌀輸入國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綠色革命이 여러가지 限界性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食糧輸出國들도 과거와 같이 食糧이 너무 많이 남아 돌아가는 상태는 다시 찾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食糧의 安保의 측면에 優先順位를 둔 食糧政策을 실시하여 무슨 일이 있어도 自給度를 낮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辛局長도 지적하셨지만 보리의 減收와 飼料穀의 消費增加로 우리의 自給度는 75米穀年度의 86%에서 현재는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自給度는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보리의 植付面積은 65년의 120萬정보에서 77년에는 58萬정보로 줄었습니다. 보리의 植付면적은 정부의 支持價格에 좌우될 것인데 금년도 보리 收買가격은 農家의 보리 增產의욕을 북돋우기에 불충분한듯 합니다.

日本의 食糧自給度는 현재 40% 수준인데 우리가 日本의 經濟成長 類型을 따라가고 있어 우리의 自給度도 60%, 50%로 낮아져 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KDI도 이런 예측을 한적이 있지요.

國民營養面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FAO의 營養권장치에 미달하고 있고, 1인당 육류 소비량이 年 7kg 수준으로 先進國의 70~80kg의 1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國民營養水準의 향상을 위해서 畜産物의 소비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援助에 의한 풍부한 食糧을 바탕으로 糧穀多消費型 畜産이 가능했지만 오늘날의 실정에서 糧穀多消費型 畜産정책을 계속 밀고나가야 할지 의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의 고유한 食品패턴이 있습니다. 그 동안 營養學者들은 각국의 食品패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놓지 않고 일률적인 영양수준을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문제되는 영양소는 단백질인데 쌀 자체의 단백질, 특히 아미노산은 상당히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쌀 위주의 전통적인 食品패턴을 食糧의 自給度까지 떨어뜨려가며 穀物多消費型的 畜産物 爲主型으로 바꿀 것인지 再考할 필요가 있습니다.

食品加工技術개발로 自給度向上

金榮洙: 食糧自給度의 향상을 위해서는 食品加工技術面에서도 전략적 방안이 시야 합니다.

식량은 收穫이 되고 流運을 거쳐 食生活에 사용이

되는데 시간이 경과하고 저장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변질의 가능성이 큼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食糧의 저장손실은 적지 않으며, 蟲害, 菌害만도 5%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加工技術이 향상되어 이런 피해를 줄이면 食糧自給度에 상당히 공헌하리라 봅니다.

또 하나 바람직한 것은 食糧政策과 관련, 인스탄트 食品의 개발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최근 찹쌀加工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쌀은 증산되지만 그 消費量은 그다지 많이 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統一系 찹쌀은 多收穫性으로 收量도 많고 질도 우수합니다. 이것을 粒食用이 아닌 加工用으로 돌리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가루로 만들어 스낵 푸드로 돌리면 품질자체도 우수한 식품이 될 것이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밀가루가 많이 절약될 것입니다. 통일찹쌀은 收량이 벼쌀과 똑같이 농민들도 栽培에 흥미를 가질 것으로 봅니다.

보리역시 粒食用이 아닌 粉食用으로 전망이 좋습니다. 보리를 粉食用으로 쓰면 우선 밀가루를 절약할 수 있고, 또 粒食에서 粉食으로 옮겨가는 食生活패턴의 변화에도 순응하는 길입니다. 日本만 하더라도 쌀은 남아돌지만 밀가루 消費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리를 粒食이 아닌 粉食利用방향으로 개발하면 需要가 많아질 것입니다.

또 여성들의 주방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便宜食品(convenient food)의 요구가 늘고 있는데 보리를 이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國民營養의 측면에서 본다면 1971년의 국민 1인당 消費칼로리는 2400이었는데 현재수준도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입니다. 내용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단백질 섭취량이 늘고, 脂肪섭취와 비타민 섭취가 증가한 것이지요. 단백질도 動物性단백질이 늘어난 것이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總熱量은 그대로인데 단백질 열량이 炭水化合物열량과 대체된 것입니다.

문제는 단백질의 總量보다 얼마나 우수한 단백질을 섭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植物性단백질보다 動物性단백질이 더 우수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食品

중에 부족한 아미노酸 특히 라이신을 보강한 營養強化食品의 개발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食品加工技術의 도입문제에도 戰略的인 고려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食品工業育成도 食糧自給度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보호육성해야겠지요.

그러나 현재 農水產部에는 이를 전담하는 課가 없습니다. 이제 食品加工技術이 國民食糧問題에 크게 공헌할 때가 왔으므로 食品加工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食糧局산하에 食品加工課를 설치하면 어떻겠읍니까.

大學에서도 食品加工을 전문으로 가르치는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을 데려다 정부서 活用해야겠지요.

국민의 보건과 영양을 생각해서 食糧政策도 이제는 종전처럼 國民經濟의 입장에서만 수립하지 말고, 국민 營養의 측면에서도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하겠읍니다.

所得이 오르면 먹고 싶은 것을 먹게 되고, 비싼 것을 찾아 먹게 됩니다. 먹고싶다는 것은 營養과 직결되는 것으로 營養의으로도 우수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日本의 학자들은 東洋人은 穀類위주로 食生活를 해왔으므로 앞으로도 이 패턴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측은 크게 빗나가 日本의 食生活만 보더라도 肉類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욕구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食糧정책도 바람직한 國民營養水準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國民食糧·營養會議의 설치를 진의한 적도 있습니다. 일단 營養의 목표가 설정되면 이 目標에 맞춰 需給계획을 짜야 하겠지요. 현재 國民營養에 대해서는 권장량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水準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現在の 食糧輸入量, 海外農地 160萬ha分

또 우리도 이제 食糧綜合研究所를 세워야합니다. 韓國農村經濟研究院과 비슷한 성격의 食品加工, 營養을 다룰 연구소가 설립되어 食糧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술상의 연구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겠읍니다. 農漁



金 榮洙 教授

각됩니다.

金東熙 : 우리나라의 금년도 국민 1인당 食糧消費量은 319kg 정도입니다. 이중 直接消費가 210kg, 間接消費가 109kg으로 되어있으며, 國內供給分이 217kg이고 穀物輸入이 96kg입니다. 쇠고기 導入量을 3萬 t으로 본다면 국민 1인당 穀物 5.7kg에 해당됩니다. 이를 輸入穀物과 합치면 102kg 수준이지요. 이것을 재배면적으로 따지면 160萬ha의 外國農地를 活用하고 있는 셈입니다. 畜産物消費가 현 추세대로 늘어간다면 食糧의 海外依存度는 점점 더 높아지겠죠.

辛局長은 自給率을 앞으로 80%線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오리지널 칼로리基準은 아닐 것입니다. 日本의 경우 칼로리基準 自給率은 40% 밖에 안됩니다. 우리도 칼로리基準으로 따지면 自給率은 푹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畜産物을 그대로 도입하고 穀物은 飼料穀을 뺀 직접소비용만 도입한다면 自給率 數値는 상당히 올라가겠지요. 이 두가지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쇠고기 輸入量은 年間 약 3~4萬 t인데 총 소요량은 8~9萬 t으로 自給率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쌀에서 炭水化合物을 취하고 콩이나 海産物에서 단백질을 취해오던 우리의 食生活패턴은 所得向上에 따라 高級化, 西歐化의 추세를 걸고 있습니다. 粒食보다 粉食이 늘고 肉類消費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村開發公社산하에 食品研究所를 둔다고 듣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農水産部 직속의 독립된 기구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길이 더 우수한 두뇌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食品 역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肉類는 所得水準과 관계가 깊지요. 쇠고기, 돼지고기는 所得彈性係數가 1을 넘으며, 牛乳는 2에 가깝습니다.

肉類의 폭발적인 需要增加가 國民營養面에서 바람직 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소위 현대 成人病이라는 高血壓, 糖尿病 등은 과잉 칼로리에서 온다고 합니다. 一部人의 肉類消費는 건강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단순히 道樂的으로 추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풍토는 教育을 통하여 또 정책적으로 바로 잡아줘야 하겠지요.

어쨌든 食糧의 영양, 기호, 經濟性 등을 고려하여 質 좋은 食品을 우리의 경제생활의 必要에 따라, 國民의 소득수준에 맞추어 어떻게 필요한 만큼 供給하느냐가 당면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쌀은 남아돌고 있는 것인가?

朱宗桓 : 肉類의 폭발적인 需要를 충족하려면 옥수수 등 飼料穀을 많이 導入해야 합니다. 옥수수 7t을 들여야 畜産物 1t이 나옵니다. 우리가 糧穀自給率을 80%선으로 유지해야 한다면 이런 糧穀多消費型 畜産政策은 곤란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의 재래식 食生活를 살려 쌀의 소비량을 적절히 늘려가면서 動物性蛋白質은 최소한으로 보충해 나가도록 國民食生活를 誘導해야 된다고 봅니다.

金東熙 : 生産 코스트가 높은 쌀의 소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長期的으로는 문제가 아닐까요. 쌀은 밀보다 生産費가 몇배 더 먹힙니다. 쌀의 계속 增産은 投入財의 코스트, 環境問題, 資源面에서 볼 때 어느 限界點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은가 느껴집니다.

朱宗桓 : 쌀이 남아 돌아갈 전망이 보인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리의 消費量이 줄고 있어서 과연 쌀의 自給이 달성되었느냐 하는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지요. 經濟企劃院에서도 쌀을 더 增産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辛建鎬 : 그 입장은 조금 修正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때 두 部處의 실무자가 공동

작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현재의 人口增加率을 1.6%로 본다면 86년도 우리나라의 인구는 4,200萬名이 되고 81년에는 3,880萬名이 됩니다. 1인당 식량 소비량은 78년도에 총 325kg 수준이며, 이중 쌀이 130~132kg 정도입니다. 금년도 上半期만 가지고 평가해 보면 132kg 입니다. 81년도의 쌀需要量은 42,576,000石인데 生産계획량은 4,323萬石입니다. 當年需要對比로는 약 80萬石이 남는다는 이야기지만, 이것은 남는 숫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쌀 소비는 意圖的으로 消費促進을 追求하지 않더라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李炯九 : 쌀의 供給이 남아 돌아간다고 決定的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農水産部와 經濟企劃院이 年初부터 공동작업을 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經濟企劃院의 입장도 딱 잘라서 쌀이 남아 돈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私見입니다만 정상적인 쌀의 需要를 놓고 본다면 年間 3,500萬石 내외가 정상인가 합니다. 쌀막걸리 등 양조용을 포함해도 3,600~3,700萬石 수준이 아닌가 봅니다. 작년도 생산량은 4,170 萬石으로 결과적으로 400萬石은 剩餘量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패턴을 보더라도 소득수준이 오르면 쌀의 需要는 점점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農水産부측도 당분간은 劣等財인 보리의 代替需要가 있을 것이므로 당분간은 쌀의 需要가 늘거나 언젠가는 떨어지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같고 差異가 있다면 觀點이 다소 다른 것 뿐이지요.

이 문제는 過去の 傾向値와 앞으로의 生活與件 變化를 면밀히 분석하여 좀 더 검토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쌀需要의 最大量은 4,200萬石을 넘지는 않을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다면 작년 수확량의 선에서 더 이상의 增産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肉類消費, 國民營養의 次元에서 아직 미흡

辛建鎬 : 美國도 肉類消費가 늘어 고심하고 있는 것을 현지에서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肉類의 과잉섭취로

成人病이 늘어나고 있어서 菜食을 위주한 東洋式食生活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준의 단백질 섭취량이라면 더 높여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朱宗桓 教授

로 찬성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食生活패턴의 변동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日本의 1인당 國民所得이 1,600·달러였을 때 1인당 肉類섭취량은 11~13kg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77년도에 8kg 수준이었고, 78년도에는 12kg 수준을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金東熙 : 北洋漁業이 중단되어 水産物供給이 달려 生鮮소비가 肉類로 代替된데도 원인이 있겠지요.

辛建鎬 : 그런점도 있지요. 또 輸入쇠고기값이 싸니까 消費가 느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 食生活을 원만하게 유지하려면 穀種間, 食品間의 급격한 消費構造와 變化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朱宗桓 : 요즈음 흔해진 고혈압, 심장병 등은 축산물의 과잉섭취 때문이 아닐까요.

金榮洙 : 그런 이야기는 일부 特殊계층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國民전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976년도 우리 國民들의 1日 평균 脂肪섭취량은 27g인데, 日本은 1969년 45g이었습니다. 단백질은 1日 평균 72g線인데 이중 동물성은 17g 밖에 안됩니다.

이 수준은 대단히 낮은 것으로서 이것이 現代成人病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國民營養의인 차원에서 현재보다 食品수준을 더 向上시켜야지 이것을 가지고 많다고 할 수는 없지요.

金東熙 : 食糧問題에 있어서도 分配가 重要な 것이지요.



辛 建鎬 食糧局長

金榮洙：富의 분배가 문제지 국민영양면에서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朱宗桓：國民營養的 面에서 단백질은 늘려야 할지 모르나 꼭 동물성단백질이 되어야 되겠느냐하는 것입

니다. 또 우리나라가 장차 日本처럼 1人當 年間 쌀 소비량이 70kg선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그들은 지금 쌀 消費策으로 腐心하고 있지 않습니다.

辛建鎬：우리나라나 日本의 農業이 모두 穀物生産 위주로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봅니다. 兩國이 모두 肉類소비가 늘고 供給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지요.

그러나 粒食에서 粉食으로의 전환은 限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日本 國民의 1인당 年間 밀가루소비량은 31kg인데 日本農林水産省은 도대체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냐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35kg 이상은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30kg선인데, 이것은 직접소비용이며, 공업용 양조용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朱宗桓：粉食을 하게되면 畜産物 消費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金東熙：中國, 印度, 西아시아, 아라비아 등 粉食지역의 食生活을 봐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畜産物의 供給문제를 놓고 볼 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등 草地가 좋아서 穀物을 먹이지 않고도 畜産이 되는 곳의 畜産物을 들여오는 것과 飼料穀을 들여다 國內生産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草資源이 많은 곳의 畜産物을 사오면 世界穀物시장에

압력을 덜 주는 方便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國內 畜産農家의 所得과 限界資源의 活用問題와 관련시켜 得失을 分析해야 할 것입니다.

畜産物, 輸入이나 國內供給이나

辛建鎬：飼料穀의 부담은 큼니다. 今年의 食糧自給目標은 71.6%인데 飼料用을 제외하면 82.4%가 됩니다. 80년도 전망은 80%線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飼料用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나 飼料用을 포함하면 65% 수준입니다.

肉類의 直接도입과 國內生産문제는 畜産農家의 소득, 공급능력, 가격구조등과 有機的으로 얽혀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供給 能力을 밝혀내고, 限界生産費를 초과해서까지 무리한 生産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제곡물시장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는 草地를 주축으로한 牧畜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金東熙：國內에 넓은 草地造成은 기후·토질로 보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초지를 만들려면 비료가 일반농사보다 3배나 더 많이 들어요. 그럴 바에야 穀物을 심지 왜 풀을 심습니까. 보리짚, 밀짚, 벼짚 등 粗飼料를 化學的으로 處理하여 飼料化해야겠지요. 현재 KIST에서 보리짚 飼料化에 關하여 상당한 研究의 진척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朱宗桓：달리작은 매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草地造成도 그렇게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급적 畜産物의 도입을 억제하고 國內供給을 늘려야 합니다. 해외축산물도 도입되면 국내가격이 떨어지고, 따라서 畜産포기능가가 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또 비료공급만 하더라도 새로운 공장이 서서 상당한 잉여생산량까지 내고 있지 않습니까.

金東熙：축산업을 축소하자는것은 아니고 제란, 돼지고기 등은 國內에서 생산자급하고 草食동물의 畜産物은 그 일부를 輸入하고, 풀러나는 農地等 資源을 다른 成長農産物 生産에 活用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臺灣의 예를 봐도 들여다 먹을 것은 果敢히 輸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특히 中産層 以下の 食生活費支出을 덜고 均衡營養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도 쇠고기와 牛乳를 포함한 畜産物供給政策(生産과 輸入)은 合理的으로 調整되어 가야할 것으로 봅니다.

朱宗桓: 그러면 쇠고기를 10萬 t 가까이 들여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金東熙: 수출만 계속 잘 되면 앞으로 그정도 輸入에 큰 문제가 있을것은아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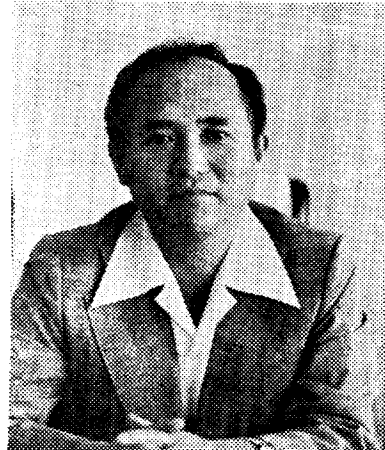
李炯九: 최근 畜産振興會가 생기는 등 여러가지 장려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畜産은 장려하고 키워야 하겠지요. 그러나 金부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比較優位에 있는 畜産物이 무엇이나를 엄격히 따져서 선별적으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는 土地集約的이고 기후조건등 비용이 많이 들어 불리합니다. 國內 畜産에만 의존한다면 원가보다 훨씬 비싼 쇠고기를 먹게 됩니다. 農業에 있어서는 比較優位가 없다는 것은 價格優位가 없다는 것이지요. 畜産物供給을 國內生産에 주로 의존한다면 政府가 價格보조를 해줘야 할 것이고, 그만큼 國民經濟의 餘他부문에 주름살이 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經濟의 國際競爭力弱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增産政策, 小農의 所得증대에 기여 못해

金東熙: 肉類를 輸入할 것이냐, 아니면 飼料穀을 도입해다 價格이 비싸더라도 國內에서 생산할 것이냐, 쌀 생산은 얼마나 할 것이냐, 보리의 생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은 農民의 所得문제와 직결됩니다. 二重麥價制를 포기하고 값싼 外國의 보리를 사오면 그 만큼 糧穀赤字가 줄 것입니다. 그러나 國內의 限界資源, 즉 노는 땅과 노동력을 다른 用途에 쓰게끔 길을 터주지 않으면 農家의 소득은 그 만큼 줄게 되고 遊休資源이 생기게 되겠지요. 이제 農産物에 대한 輸入開放의 압력이 크지만 食糧政策에는 農家所得이란 큰 문제가 聯關되어 있어 政策調整에 深慮와 慎重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李炯九: 60년대 말부터 실시한 農産物價格支持政策이

農家의 交易조건을 改善시키고, 所得向上에도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食糧增産政策에 큰 역할을 한 점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農家의 所得分配라



李 炯 九 企 劃 官

는 측면에서는 좋은 効果만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경지면적이 0.5ha 미만인 小農의 所得중 農業所得의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상태입니다. 2ha 이상의 大農의 경우는 穀物中心의 農業所得이 農外所得에 비해 높습니다. 0.5ha 미만 농가의 총소득중 農外所得의 비중은 41.7%인데 비해 2ha이상 농가의 農外所得 비중은 7.7%에 불과합니다.

臺灣의 경우는 農家의 農外所得이 全體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小農은 69.9%, 大農은 26%, 日本의 경우는 小農이 92.8% 大農이 32.5%로 그 격차가 우리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農家所得面에서 小農의 大農에 대한 비율은 大農을 100으로 볼 때 30정도이며, 臺灣은 50, 日本은 75입니다. 小農과 大農간의 소득격차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도 農産物價格政策이 小農의 所得증대를 위해서는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大·小農간의 소득격차 축소에 별로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所得分配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農家所得은 農外所得에 重點을 두고 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臺灣과 日本도 그 패턴을 걷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바로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의 주관하에 짜도록 추진중입니다. 우선 短期的으로는 穀物生産中

心체제에서 탈피하여 단백질식품, 新鮮식품의 생산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하겠지요.

그동안의 農業政策은 主穀自給에 주력함으로써 모든 농업부문의 투자가 쌀·보리의 증산에 集中되었지요. 水利사업, 경지정리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需要의 측면을 반영하여 投資의 방향도 채소, 畜産쪽으로 돌려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農村의 雇傭수준은 전체의 42%에 달합니다. 이 노동력은 他産業부분으로 轉用하기 위한 教育계획이 세워지고 기회부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農産物價格, 高物價시대를 先導하는가?

朱宗桓: 自由貿易論에 있어서 比較生産費說은 完全雇傭, 資源의 완전이용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可用資源이 남아있을 때에는 성립이 안되는 것이지요. 외국에서 쇠고기를 마구 들여오면 국내의 畜産業은 倒産하고 거기에 사용된 土地와 勞動力은 쓸모없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서 肉類輸入정책은 彈力의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대체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기값이 올라가는 것을 너무 신경질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고기값이 物價上昇을 주도한다고 하나 日本의 예를 보더라도 物價를 先導하는 것은 工産品이지 畜産物은 아닙니다. 工業제품은 自動化, 省力化, 量産化 등으로 비용절감을 해서 값을 낮출 수 있지만 농산물은 勞動生産성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生産도 1년에 한번 뿐이며, 機械化도 어렵고, 또 土地資源 자체의 有限性이 있지않습니까. 이런 産業的인 특수성을 고려해야 되겠지요. 農畜産物의 價格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하나 物價構造面에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주 不可避해서 輸入할 경우 고기중에서 비싼 것만을 輸入하지 말고 內臟, 꼬리등 값싼 것도 들여다 庶民들에게 공급했으면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꼬리 한개

에 300원정도 밖에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李炯九: 쇠고기는 高所得層만 먹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低所得層이 국제시세보다 훨씬 비싼 쇠고기를 사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高所得層은 여유가 있으니까 選好대로 좋은 것을 골라 먹을 수 있지만 低所得層을 위해서도 싼 고기가 있어야겠지요.

臺灣의 경우 市販쇠고기 값은 국제시세와 같고, 日本의 경우는 국제시세의 약 8배 입니다. 日本이 비록 국민소득이 五千달러를 넘는다고 하지만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들의 生活의 質이 과연 좋은 나라냐 하는 것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쇠고기값은 더 싸져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쇠고기를 들여 오더라도 國內 畜産業이 넘어지도록 政府가 그냥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畜産業이 도산하면 거기에 使用된 土地나 노동력이 쓸모없이 된다고 했는데 모든 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형편에 쓸모없는 勞動力과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飼育農家は 全國에 100萬戶쯤 되지만 10頭이상의 專業農家は 1,200세대에 불과합니다. 이 1,200세대를 위해서 우리국민 전체가 비싼 쇠고기를 먹어야만 하느냐 하는 問題도 再檢討해 봐야 할 것입니다.

金東熙: 物價당국에서는 農産品값이 高物價추세를 先導한다고 보고있는데—

李炯九: 작년도 都賣物價 상승율은 10%였는데, 이 중 非食品은 상승율이 5%에 불과했으나 食品은 21%나 되었습니다. 쌀값은 비교적 안정되었으나 쌀을 제외한 食料品의 상승율은 21%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6월말까지 都賣物價가 약 7% 올랐는데 그 중에서 非食料品의 상승율은 4~5%에 그쳤으나 食料品은 15%가 올랐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상반기를 볼 때 食品가격이 物價를 先導하고 있다는 사실엔 異論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오르느냐하는 것인데, 우선 금년도 上半期에는 비가 안와서 채소를 중심으로 한 일부 농산물의 생산이 예년보다 뒤졌던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根本的인 원인은 國民所得水準이 1,000달러總

에 육박하고, 海外進出 근로자의 家計送金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家計所得이 상당히 늘어난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家計所得이 오르면 일차적으로 高級食品에 대한 需要가 急増하는것이 他國의 先例로 보아 정해진 進路입니다. 우리의 경우 금년에는 需要構造의 變化와 供給不足 사태가 겹친 셈이지요.

供給不足에 대한 對處方案은 우선 短期的으로 외국에서 사다 쓰는 방안이 있겠는데, 쇠고기의 경우는 年初부터 추진했습니다만 食品輸入에는 언제나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物價는 다 오른 후 수입해 오는 行政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통적인 행정부의 생각은 食品은 가급적 輸入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때문에 意見調整에 시간이 많이 걸려 供給이 需要를 뒤 따르는 현상이 되게된 것입니다.

3개월분 食糧備蓄, 過度한 量 아닌가

金東熙: 政府는 全國民의 3개월분 食糧을 비축한다고 했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과연 3개월분 備蓄이 適正한 水準이 되겠는지요.

辛建鎬: 備蓄문제는 3가지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安保의인 차원에서 많은 물량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凶作에 대비한 것이며, 셋째는 價格支持機能을 위해서 입니다. 政府는 81년까지 3개월분을 비축한다는 계획인데, 지금 쌀이 남아 돈다고 하지만 그때까지는 生産과 供給이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李炯九: 쌀에 대해서는 물론 安保의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安保라는 概念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 봅니다. 米作을 전통적으로 해온 우리나라에서는 쌀에 대해 다소 非合理的인 鄉愁 비슷한 것이 있는것 같아요. 넉넉히 갖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지요.

그러나 만약 쌀의 需要와 供給사이의 격차를 그대로 갖고 간다면 剩餘米는 農家의 在庫로 남아있지 않는한

정부의 在庫가 될 것입니다. 農家의 창고능력, 보관기술, 資金사정등으로 보아 2~3년씩의 비축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國民이 消費하고 남은 쌀은 政府가 계속 收買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辛建鎬: 쌀이 남아 돌아갈 형편은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經濟性만 따지면 수입해다 먹으면 싸지만 農家經濟, 農村雇傭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단순한 私企業의 論理가 公經濟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쌀의 生産基盤이 확고하니만큼 이제는 備蓄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思考도 성급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金東熙: 糧穀의 저장·가공·유통과정에서 相當量의 減耗量이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것도 自給率을 向上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辛建鎬: 저의들도 加工技術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主穀이 自給化되면서, 저장문제 특히 減耗문제에 注目해야 된다고 봅니다.

金東熙: 資金뒤틀바침을 해서 加工문제를 좀 더 研究開發했으면 합니다.

金燮洙: 食品加工研究所를 세워야지요.

辛建鎬: 지금 米麥 이외의 食品加工분야는 農漁村開發公社가 연구하고 있으며 農村振興廳은 食生活改善, 주로 農村食生活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食品加工기술은 農開公이 차관을 들여오고 外國技術陣들이 합세하여 연구를 하고 있으며 상당히 기대가 큼니다.

食糧의 安定供給위해 輸入先 多邊化 필요

金東熙: 모자라는 食糧의 安定的 輸入을 위해서는 安定된 輸入源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편중된 輸入先을 多邊化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辛建鎬: 日本의 경우 美國에서 총수입량의 55~60%를 導入하고 나머지 40~45%는 다른 여러나라에서 들여 옵니다. 輸入先의 多邊化는 檢討해 볼만한 事案이며 美國이 세계 穀物교역량의 50~5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일정율은 美國에서 들여오고 나머지는 여러나라에서 들여오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金東熙: 食糧輸入도 늘어나는 工產品輸出과 연결시

켜 堂堂한 立場에서 交易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硬質 小麥은 캐나다, 軟質小麥은 오스트레일리아, 옥수수는 아르헨티나 등 좋은 輸入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美國의 경우 종래 世界의 穀倉으로 在庫를 자기비용으로 갖고 있으면서 世界시장에 내놓곤 했는데, 요즈음은 이 貯藏 및 備蓄費用을 輸入國과 分擔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輸入하면 된다는 생각은 어려울 것 같아요. 日本은 얼마전 美國穀物은 사서 美國內에 저장하는 方案도 檢討한다는 보도를 읽었습니다. 또 數年前 美·日 두 나라의 農務長官이 만나 小麥 3百萬 t, 옥수수 8百萬 t 을 美國이 日本에게 안정적으로 供給키로 約定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떤 協定이라도 맺는 것을 검토하고 또 한편으로는 開發輸入 등 다양한 食糧海外調達戰略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辛建鎬 : 日本의 경우 協定은 아니고 단순한 약속입니다. 외교적인 覺書가 아니라 書翰입니다. 그것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 알아 봤는데 다만 有事時에 같은 입장이면 約束안한 나라보다 더 優先權을 준다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식이라도 취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문의한즉 美側전문가들 이야기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世界食糧사정이 그렇게 급박한 것도 아니고, 또 韓國이 美農產物市場에서 갖는 위치로 보아 多量固定輸入國인 한국은 우선적인 공급을 받을 편리를 갖고 있으며, 美國도 그런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開發輸入문제는 日本도 다소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그들은 低開發國에 農業開發·技術援助를 베풀고 그 댓가로 原料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받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外貨의 여유가 늘어감에 따라 이 방향으로 관심을 돌려야 하겠지요.

複合粉, 인스턴트食品 등 보리消費대책 세워야

이건 다른 話題인데, 앞으로 보리의 消費對策이 課題가 되고 있습니다. 土地, 노동력 등 資源 활용을 위

해, 그리고 食糧自給度の 向上을 위해 보리栽培는 계속해야겠는데 국민들은 잘 먹으려 하지 않아요.

金燦洙 : 粒食用이 아닌 粉食用으로 複合粉을 만들어 보급하고 인스턴트食品쪽으로 돌려야 하겠지요. 酒精原料로도 허용을 해준다면 많이 쓰지 않을까요.

金東熙 : 영양면에서 보리에 라이신같은 必須아미노酸을 補強하여 밀가루代用으로 가공, 산 값으로 보급하면 國民營養을 위해서, 특히 低所得層을 위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또 麥酒의 稅金을 대폭 낮춰 國民들 모두가 값싸게 마실 수 있게 해 준다면 麥酒麥의 需要가 늘어 農家소득, 특히 남부지방의 農家소득과 土地利用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麥酒에는 상당량의 칼로리가 들어있지요. 스위스에 갔더니 1달러에 맥주를 네댓병 주더군요. 포도酒같은 紅茶값과 비슷하고요.

辛建鎬 : 複合粉문제는 76년도에 실시했는데 시험결과 20% 혼합까지 지장은 없었으나 加工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스턴트食品 쪽은 더 研究해야 되겠습니다. 영양강화 식품으로는 영양강화 壓麥이 나가고 있는데 국민들의 호응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朱宗桓 : 처음에는 反應이 안 좋겠지만 권장해서 널리 보급시켰으면 합니다.

金東熙 : 다음은 糧穀管理基金의 赤字및 이와 관련한 인플레이 對策입니다. 政府가 糧穀을 物量面에서 더 많이 다룰수록 赤字幅은 커지고 인플레이가 뒤 따를텐데요.

李炯九 : 작년도 年末 通貨팽창율은 41%였는데 그 根本原因은 國際收支의 改善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今年初 財政部門의 政府通貨증발이 있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產 秋穀收買代金을 年初에 支拂해줬기 때문입니다. 糧穀管理基金의 赤字는 年末까지 財政部門의 가장 큰 통화증발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年末까지 糧穀管理基金의 赤字幅이 4,000—4,200億원이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下에서 政府가 통화를 증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他部門에서 4,200億의 赤字를 만들어야지요.

糧穀會計赤字 누적액 9,500億원

우리나라의 경우 一般會計에 대한 糧特赤字의 비율은 약 13%가 됩니다. 이웃 日本은 5% 수준입니다. 日本은 국방비가 일반회계의 9% 안팎이지만 우리는 35~36%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國防費 부담에 대해 糧穀管理부담을 많이 한다는 것은 財政운영의 硬直性을 더해 줄 뿐입니다.

辛建鎬 : 77년도의 결손累計는 3,694億원이고 累積資金赤字는 9,500億원 입니다. 당면한 가장 큰 일은 韓國銀行의 借入을 최소한으로 막아 通貨팽창을 줄이는 것입니다.

金東熙 : 赤字幅이 그렇게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李炯九 : 크게 보아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政府在庫量의 增加에 따른 것이고, 또 하나는 收買價와 放出價의 차이 때문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예년 600萬石 안팎을 收買하던 것을 970萬石 收買했습니다. 이에 따라 在庫量이 격증했고, 基金赤字가 약 2,000億이 늘었습니다. 나머지는 收買價와 放出價의 差異에 의한 赤字입니다. 지난해 收買가격은 가마당 27,000원이었는데 여기에 조작비까지 합치면 약 30,000원이 됩니다. 그것이 처음 放出價格이 19,200원이었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해 23,200원으로 올렸지만 결국 가마당 政府가 10,000원씩 손해를 보면서 基金을 운영한 셈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적자가 1,700—1800億원입니다. 두가지를 합쳐 糧穀赤字의 누계가 3,700—3,800億원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日本의 경우는 收買價와 放出價의 차이가 1000엔 정도입니다.

辛建鎬 : 收買價와 放出價의 差, 즉 2重穀價制는 대부분의 경우 농민을 위한 收買價格支持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國民食生活의 安定, 특히 庶民食生活의 安定과 物價安定이라는 측면에서 싼값으로 방출함으로써 인한 결손액의 增大問題를 糧穀基金이 부담한다는 것은 不合理합니다. 소위 社會保障의인 성격의 2重穀價로 인한

결손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補填되어야 합니다.

日本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日本食管은 매년 8,000億엔 정도의 결손이 생기고 있는데 이를 일반회계가 매년 補填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補填해주지 않으므로 결손이 累增되고 있으며, 金利부담이 체증되므로 費用의 幅도 커지고 있습니다.

糧穀赤字의 해소를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의 적극적인 補填이 關鍵이며, 한편으로는 通貨增發要因이 되고 있는 韓銀借入金의 最少化 및 2重價格幅의 축소라고 보겠습니다.

금년도 韓銀借入金은 2千億원 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PL480 및 CCC(美國商品信用公社)에 의한 잉여농산물을 도입하고, 그 판매대금을 활용하는 한편 양곡증권을 발행하여 借入依存度를 最少化하고 있습니다. 만 이 경우 金利부담이 늘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격면에서는 81년까지 쌀의 收買價와 販賣價를 平等化하고 중간 조작비만 정부가 부담할 구상입니다.

宗朱桓 : 결국 쌀의 消費者 價格을 올리는 결과가 되겠군요.

辛建鎬 : 物價上昇幅과 비교해서 放出價의 상승율이 약간 높ی 올라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在庫量 늘리지 말고 放出價 現實化해야

李炯九 : 赤字幅을 줄이는 문제는 原因에서부터 對策을 찾아야 하겠지요.

우선 在庫量을 늘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쌀의 生産을 需要에 맞춰야지 生産이 늘면 既存赤字幅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쌀의 生産을 줄이면 農家所得이 줄어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農家の 總所得중 農業所得이 75%나 되며, 그중 穀類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나 되어 穀物에 대한 農家所得의 依存度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代替의인 政策이 없이 한번에 줄이기는 곤란하겠지요.

다음은 收買價와 放出價를 줄여 나가는 방안입니다. 금년의 경우 지난 6월에 放出價를 인상하여 이 폭은 다소 줄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放出價를 現實化하고

收買價를 安定化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日本이 쌀의 需給상황을 봐서 민감하게 收買價格을 조정하는 것은 우리도 눈여겨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7년 日本의 쌀 生産은 처음으로 需要를 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日本은 68년부터 收買價格을 前年比 5% 增加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69년부터 72년까지는 0%로 凍結시켰었습니다.

金東熙 : 流通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辛建鎬 : 지금까지 糧穀은 消費地 중심으로 방출해 왔기 때문에 產地市場의 기능이 거의 무시되었습니다. 이제는 產地市場기능을 擴充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產地의 수집상인을 등록시켜 產地시장의 調節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農產物流通은 그 자체가 매우 원시적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產地에서 소매상까지 직접 가는 것입니다. 日本도 이런 流通構造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금년초 일반미값이 상당히 올랐는데 그것은 新品種벼의 생산확대 때문입니다. 在來米는 제작년의 1,800萬石에서 작년에는 1,600萬石으로 줄었습니다. 在來米의 生産減少로 쌀값이 오른 것이나, 이제는 安定되었으며 流通構造의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密陽, 維新등의 새 品種보급으로 米質의 차이는 상당히 개선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都賣시장의 기능이 현재 완전히 마비된 점입니다. 일반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앞으로 일반미가 정상 유통될 때에 대비해서 都賣시장을 계속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金東熙 : 都賣市場을 육성하려면 가격통제를 해서는 곤란하겠지요. 物量이 적을 때면 몰라도 物量이 많을 때는 市場機能에 맡겨 價格調節을 펴야할 것이고, 정부도 價格통제방식이 아닌 物量조절을 통해 시장가격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糧穀流通, 市場기능 심본 활용해야

朱宗桓 : 一般米값이 오르는데 대해서는 정부가 구태여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계층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物價指數만 따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政府가 책임을 져야할 대상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食糧供給이지요. 一般米 都賣市場은 정부가 多收穫品種의 쌀을 관장하여 가격조절을 하면 거기에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金東熙 : 日本의 경우도 一般米(自主流通米)와 政府米가 分離되어 있습니다.

辛建鎬 : 그 말씀은 論理的으로 타당하나 쌀값이란 相關관계가 있어서 일반미 값이 오르면 餘他곡물도 오르게 됩니다.

金東熙 : 物量이 많으면 그렇지도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쌀값의 계절적인 振幅을 13%로 묶었는데, 과연 이것으로 保管期間利子, 保管費, 減耗量 등을 보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糧穀의 貯藏을 정부가 맡으면 그만큼 政府의 財政負擔이 늘니다. 民間部門에서도 一部 나누어 맡아야 하는데 이런 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마진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民間쪽에서는 가급적 在庫를 안가지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정부의 부담은 무거워지는 것이지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政府는 필요한 量만 갖고 나머지는 民間쪽에서 保有하도록 하는 米價政策의 運用이 必要한 것 같습니다.

金熒洙 : 餘談입니다만 政府의 糧穀계량단위를 통일 했으면 합니다. 收買와 販賣는 kg으로 하고 政府의 각종 統計는 섬, 石으로 하니까 중잡을 수 없어요.

金東熙 : 政府가 앞장서서 計量單位도 통일해 줬으면 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